‘오크라’는 제주어로 ‘올게’라는 뜻이에요. 오크라 펜션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서 마을을 돌아보기도 좋고 관광지를 다니기에도 좋아요. 제주에서 가장 큰 수산저수지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제주에는 저수지가 흔하지 않아서 특별한 느낌이랍니다. 수산저수지를 품고 있는 수산봉이 바로 옆이어서 산책하기도 좋아요.

"남편 고향이 애월읍 수산리에요. 저는 표선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한 이후 수산리에서 살고 있어요. 둘 다 제주 토박이이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펜션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크라 펜션 옆에 또오크라 펜션도 있어서 함께 운영 중이에요."

오크라 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8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북길 33

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

• 교통이 편리해요. 도보 5분 거리가 버스 회차지여서 제주 버스투어도 할 수 있어요.

• 텃밭에서 직접 키운 고추, 상추, 오이 등 각종 채소를 직접 따서 드실 수 있어요.

• 제주 현무암 색과 흰 구름색을 닮은 예쁜 건물이에요.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시는 분

• 제주 한달 살이를 하고자 하시는 분

• 렌트없이 버스 여행에 도전하고 싶은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문의전화 010-2880-7624

• 제주 국제공항에서 차로 20-30분 이내로 오실 수 있고, 버스로는 50분 내외로 오실 수 있어요. 수산리 사무소 정류장에서 약 450m, 5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 편의점은 약 5분 도보거리에 있어요.

• 가스만 준비해오시면, 정원에서 무료로 바비큐를 해 드실 수 있어요.